

# 재외동포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 라오스 한글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한글학교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 총 5회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척도와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8개 하위척도별로 세분하면, 부모의 ‘합리성’과 ‘애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의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확대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용어: 재외동포,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부모교육프로그램

■ 투고일: 2011.5.22    ■ 수정일: 2011.9.4    ■ 게재확정일: 2011.11.1

## I. 서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규정한다. 특히 재외한국인(在外韓國人)은 재외동포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만을 말하며, 보통 재외교민이라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재외동포를 국외거주 한국인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국외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한다.

통계청(2010)이 발표한 출산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합계출산율<sup>1)</sup>은 1.15명, 출생아 수는 44만 5,000명이다. 이는 2008년 합계출산율 1.19명, 출생아 수 46만 6,000명에 비해 모두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재외동포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7% 증가했다(김성곤, 2009). 최근 외교통상부(2011)는 2010년 재외동포 수를 726만 8,771명으로 보고했다. 이는 2009년 682만 2,606명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이주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56%로서 406만 3,220명, 미주지역 35%로서 252만 1,470명, 구주지역 9% 로서 65만 6,707명 등의 순이다. 주요 국가별 재외동포는 중국 270만 4,994명, 미국 217만 6,998명, 일본 90만 4,806명의 순이다. 한편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거주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1%, 장·단기 체류자는 18%, 영주권자는 16%, 유학생은 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조사 결과, 자녀 양육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부모가 일반가정 부모의 87.5%,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부모가 73.7%로 나타나 부모들이 실제로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유순·이국향, 2010). 국내 일반가정 부모의 양육부담이 이 정도라면 자녀 양육에 있어 친인척이나 이웃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제한된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양육부담감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재외동포가정의 어머니와 두 딸이 자살한 데 이어 현장으로 달려갔던 아버지마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신문, 2010.5.11). 경찰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견디지 못해 동반자

1)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참고로 2009년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1명, 영국은 1.94명, 일본은 1.37명이다.

살한 것으로 보고했다. 어머니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남편과 8년 간 떨어져 살면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제한은 물론 교민사회로부터도 고립된 채 심리사회적 양육부담을 혼자 감당했다. 그러나 이웃의 지지나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자녀들의 사회성도 위축되었다(한국일보, 2010.11.26). 신의진(2007)은 국외로 이주하여 새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마저 단절되면 또래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수정(2007)도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하는 재외동포가정의 경우, 자녀는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우울하고 사회성마저 약화되어, 학교에서는 또래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면서 이전에 속했던 문화권의 양육신념과 새로 이주한 문화권의 양육신념 및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타국어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모는 생업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감해 주거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때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への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오남, 2007; 김연수, 2008; 권복순, 2009; 김영주, 2009; 터더이 아리온 사나·유서구, 2011). 권복순(2009)은 이주가정 어머니의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검증했고, 자이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부모의 자이존중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이존중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이라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덜 받고, 오히려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사실이 검증되었다(신정아·양혜원, 2008). 따라서 부모의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성혜 외(2009)는 이주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녀양육방법, 자녀에 대한 기대까지 서로의 견해가 달라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실제로 Butcher 외(1988)는 197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이

미국의 일반가정에 비교하여 더 많은 부부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초래했음을 보고했다. 이혜승(2003)의 조사결과, 재미동포가정의 이민 1세 부모는 미국의 정주가정 부모보다 권위적 통제나 일방적 감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2009)도 재미동포가정의 양육과정에서 이민 1세 부모와 1.5세 및 2세인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 19세 이후 이민을 간 1세대는 미국의 초중등교육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도 학업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적응문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증가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현재 거의 없다. 최근 재외동포가정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양육부담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의 향상, 사회적 지원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보면 쌍방향 이주의 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사업,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이들 국가에서는 역으로 취업, 학업, 결혼 등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와 다문화를 기반으로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아시아지역에서도 특히 라오스에 이주하는 재외동포가정이 최근 매년 늘고 있다. 외교통상부(2011)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라오스 거주 재외동포 수는 833명으로 집계되어 2009년 540명보다 5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라오스 투자 확대에 따른 순수 유입인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격별로는 일반체류자 685명, 유학생 148명이다. 그러나 재외동포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라오스에 아직 한 곳도 없다. 더구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도 없다. 참고로 라오스한글학교 운영위원회(허연주, 2009)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 아동의 현지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부모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라오스한글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한국인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이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양육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라오스 거주 한국인가정의 양육환경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에 둘러싸인 인도차이나반도 내륙국가이며, 국토의 약 80%가 산지이고 68개 소수민족들이 서로 다른 생활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고온다습한 열대몬순기후로서 연평균 기온은 26도이며,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전체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라오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와 불어를 일부 사용한다.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등교육 6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취학률은 전국 평균 75%(남자 79%, 여자 72%)이다(박재현, 2008).

라오스에 입국하여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한국인은 2009년 총 540명이며, 이들의 90%가 수도 비엔티엔에 거주하고 있다(주라오스한국대사관, 2009). 라오스한글학교가 2003년 설립되었고, 라오스국제학교가 2003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안정된 교육체계를 마련했으며,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는 사업 또는 취업을 위해 라오스에 입국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한국인 가정으로 하여금 한국에 남아있던 배우자와 자녀를 라오스로 이주시킴으로써 아동 수가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8세 미만 아동 수는 112명으로 총 등록 재외국민의 20.7%를 차지한다. 또한 보다 적은 비용의 자녀 조기 영어교육과 라오스 고교졸업 후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가정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허연주, 2009).

## 2.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심이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적 태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개념이다(Rosenberg, 1979; Coopersmith, 1967).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가 이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된다(허묘연, 2004).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 가치관, 신념, 정서상태가 반영되어 있고, 가족구성, 가족기능, 가정분위기, 가정의 이주로 인한 사회적 지위, 해당 사회의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 태도, 가치관, 행동 등 심리·사회적 발달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주로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나,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노진아·이숙, 2003; 김경미, 2006). Cohen과 Willis(1985)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완화시키는 대처자원을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으로 양분하고, 내적 자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 자기신뢰이며, 외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와 자원이라고 세분한다. 이에 근거하여 김경연(1993)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수용적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고, Belsky와 Kelly(1994)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은 물론 영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수용적 태도로 반응하며 시의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발전시켜 Raikes와 Thompson(2005)은 부모의 소득과 양육행동 간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 내부의 심리특성과 외부의 지원특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빈곤, 실직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낮은 부모에 비해 자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건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동요가 적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며 일관된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서유정(2002)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보다 양육 스

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좌절, 무력감은 자이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에게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투사되어 공격성을 자극하거나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이존중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Belsky와 Kelly(1994)의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 즉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추영(2004)은 부모의 종교유무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자이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자이존중감이 낮은 부모집단이 자이존중감이 높은 부모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이존중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의 자이존중감이 양육행동에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알 수 있다. Loftus(2006)는 부모의 자이존중감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함께 긍정적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모의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신정이·황혜원(2008)은 소득 수준은 자이존중감이나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모의 자이존중감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즉 부모의 자이존중감이 가족소득의 매개변인으로서만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Belsky와 Kelly(1994)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이는 곧 부모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내적 자원인 자이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이존중감 향상은 양육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 3. 양육행동 강화를 위한 선행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Fine,

1988; 유안진·김연진, 1997; 안희정, 2005). 따라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행동전략과 의사소통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모교육 관련 국외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부모효과성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이하 PET)프로그램은 Rogers(1961)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론과 Levey(1968)의 의사소통이론을 접목한 Gorden(1970)에 의해 개발되었고,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을 목표로 반영적 경청(active listening), 나-전달법(I-message), 무패법(no-lose method) 등의 의사소통기술을 교육한다. 이화순(2008)은 한국의 농촌지역부모를 대상으로 PET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참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검증했다. 체계적 부모역할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이하 STEP)프로그램은 Dreikurs(1973)의 민주적 양육이론과 PET프로그램을 접목한 Dinkmeyer와 Mackay(1982)에 의해 개발되었고,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녀 및 부모 자신 이해, 자녀의 지지, 논리적 훈육, 민주적 가족회의의 방법을 교육한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ctive Parenting Today, 이하 APT)프로그램은 Adler(1979)의 개인심리학이론에 기초하여 PET프로그램과 STEP프로그램을 접목한 Popkin(1983)에 의해 개발되었고,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뢰표현, 칭찬, 격려편지쓰기, 분노조절, 논리적 훈육, 가족회의를 교육한다. Ying(1999)은 중국계 미국인 이주가정을 대상으로 총 8회기의 APT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의 책임감, 부모-자녀관계, 가족응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긍정적 부모역할(Positive Parenting, 이하 PP)프로그램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APT프로그램에 가족상담이론을 접목한 Sanders(1999)에 의해 개발되었고, 자녀와 부모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녀와 함께 질적인 시간 갖기,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표현, 구체적 칭찬, 규칙 정하기, 명확한 지침주기, 시간제한, 현실적 기대감 갖기, 부모로서의 자신 돌보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객관적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자녀의 행동과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 이해를 중심으로 회기별 내용이 구성되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성이 검증되었다(양옥경·김연수, 2004). Kane 외(2007)는 PP프로그램이 자녀

와의 공감과 다른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증가시키고, 부모의 죄책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부모를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존재로 전제하고 부모-자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부모의 강점을 지지하고 강화하거나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는 PP프로그램을 지역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정·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강기정(2005)은 한부모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모델 관점에서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정은미(2007)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화순(2008)은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재현(2008)은 빈곤가정부 모를 대상으로 강점관점에서 PP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김연수(2008)는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면서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이론에 기반하여 총 6회기의 PP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관계가 향상되었다. 특히 김유순·이국향(2010)은 빈곤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부모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PP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저소득가정 부모 8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주 1회, 2시간씩, 총 6회기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양육행동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부모에 비해 실험집단에 참여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합리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감소했으며,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민성혜 외(2011)는 충남 아산시 다문화센터와 서울시 은평구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기 이주가정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PP프로그램에 이주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 총 8회기의 놀이 중심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수정·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부모효능감의 하위 변수들 가운데 의사소통 효능감과 능력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 한 편도 없다.

그런데 이 연구는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점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병리보다는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역량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입하는 실천 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나름대로의 강점과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스스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변화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즉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초기 회기에서부터 부모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찾아 자신의 양육 신념을 상호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가. 프로그램의 목표

제2장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부모의 자이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이들의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허묘연 척도(2004)의 8개 하위개념에 근거하여, 두 번째 목표의 하위 목표는 양육행동에 있어서 합리적 설명의 증가, 민주적 감독의 증가, 애정의 증가, 비밀관성의 감소, 과잉기대의 감소, 과잉간섭의 감소, 학대의 감소, 방임의 감소로 구분된다.

##### 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회기별 내용

이 프로그램은 2010년 1월 라오스한글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인 교

사들과 학부모들의 제안으로 그 실시가 결정되었다.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앞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의 목표에 근거하여 Sanders(1999)의 PP프로그램을 이주가정의 부모, 즉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김연수의 연구(2008)에 기초했다. 이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부모의 자녀교육 욕구와 양육환경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의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에 초점을 둔 강점관점의 PP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표 1>과 같이 재구성되었다.

표 1.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활동내용

회기	활동명	목표	하위목표	활동내용
사전검사: 자이존중감 척도와 부모양육행동 척도에 의한 사전검사				
1	마음열기	자이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집단 이해</li> <li>• 자신의 강점 이해</li> <li>• 자신의 프로그램 목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목적과 소개</li> <li>• 공동체놀이를 통한 친근감 형성 - “당신이 궁금해요”, “별명 이야기”</li> <li>• 나의 칭찬 네 가지와 목표 설정 - “나의 꽃 그리기”</li> </ul>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어린 시절 이해</li> <li>•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분석</li> <li>• 자신의 성격과 양육행동 이해</li> <li>• 부부관계와 양육행동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evie Wonder의 자녀사랑 - “Isn't she lovely?” 느낌 나누기</li> <li>• 자신의 인생곡선 그리기</li> <li>• 신문기사 사례분석: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li> </ul>
3	아하! 그렇구나! 우리아이 이해하기	양육행동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발달특성과 강점 이해</li> <li>• 부모 자신과 자녀의 관계 분석</li> <li>• 양육행동에 의한 자녀의 성격</li> <li>• 이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가정의 양육에 관한 인권 교육 에 니메이션(국가인권위) 시청</li> <li>• 자신의 양육행동 점검과 긍정적 피드백</li> <li>• 부모와 자녀의 입장 바꿔 생각하기: “부모가 아이를 화나게 한다!”</li> <li>• 양육행동의 네 가지 유형별 역할극 - “나의 양육행동은?” 느낌 나누기</li> </ul>
4	새로운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문제의 원인 이해</li> <li>• 개방적 의사소통의 기술 습득</li> <li>• 경청의 이해와 기술 향상</li> <li>• 공감의 이해와 기술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 자녀와의 대화 녹음 듣기</li> <li>• 자신의 대화법 점검과 긍정적 피드백</li> <li>• 부모 - 자녀 의사소통 사례분석 -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li> <li>• 마음을 얻는 경청: 관찰과 역할극</li> <li>• 자녀와 마음이 통하는 공감: 나 - 메세지, 분노조절기술 훈련</li> </ul>
5	미션! 파서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양육행동 강점 확인</li> <li>• 자신의 양육행동 변화 확인</li> <li>• 변화된 양육행동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력하고 변화한 부모칭찬하기</li> <li>• 나의 양육행동 선언문 만들기 노력한 방법을 인정하고 강화하기</li> <li>• 프로그램 정리와 수료증 전달, 수료식</li> </ul>
사후검사: 자이존중감 척도와 부모양육행동 척도에 의한 사후검사				

이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구성되었다. 그 이유는 국내 건강가정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연구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회기가 다소 길어지면 참여부모의 중도탈락률을 높일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부모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보다 자녀의 양육부담을 도와 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이 더 적고 거주지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부모의 결석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anders(1999)의 PP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고, 이주가정부모의 강점을 강화하는 김연수(2008)의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접목하여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지난 회기의 검토시간과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총 5회기로 주 라오스대사관저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가 매 주 프로그램 종료 직후 점심식사와 차를 1시간 이상 함께 나누면서 매 회기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고, 다음 회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외공관의 관심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와 연계하여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지지망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1회기는 친교활동과 라오스에 입국한 이후 학령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 자신, 자녀, 지역사회를 강점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회기는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 신문기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 자신의 성격과 부부관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강화될 수 있다. 3회기는 이주가정의 양육환경에 관한 애니메이션(국가인권위원회, 2008)을 시청하고 양육행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자녀의 강점을 찾고 이러한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자녀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네 가지 유형별 역할극을 통해, 아동학대의 원인을 이해하고 각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4회기에서는 평소 집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가져 온 내용을 함께 듣고, 서로의 강점과 보완점을 찾아준다. 이에 기초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청, 공

감, 개방적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역할극을 통해 체득한다. 5회기에서는 부모가 국외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양육행동의 강점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내용을 찾아 인정하고, 이러한 노력을 프로그램의 종결 이후에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녀를 위한 양육행동 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 2. 연구의 설계: 전실험설계(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이 연구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 1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5회기 실시하고, 전실험설계인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사전검사는 2010년 1월 19일 제1회기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실시하고, 사후검사는 2010년 2월 16일 제5회기 프로그램 종료 직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 부모들이 각자 프로그램의 과정을 회기별로 정리하여 마지막 모임에서 ‘자녀를 위한 양육행동 선언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약속했다.

특히 이주가정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2회 구성은 ‘부모 자신의 소중함과 아동기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분석’에서 출발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기 프로그램의 내용은 바로 제3회기의 ‘현재 부모로서의 내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연계되어 이후 후반기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모의 양육행동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객관적 이론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간 회기별 세부 내용과 하위 목표가 상호 연계되어 제한된 시간에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이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 연구의 대상과 절차

이 연구의 대상은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인부모 11명이다. 라오스 한글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홍보되었고, 참여부모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지원한 11명이 선정되었

다. 이 연구의 저자가 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행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아동 복지를 가르치면서 국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왔고,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8주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라오스 한글학교 교장의 역할을 자원봉사자로서 수행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태국 등 재외동포 가정이 더 많은 국가가 아닌 라오스에서 이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4. 측정도구

### 가. 자아존중감 척도

이 연구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등 5개 긍정적 문항과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등 5개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차원의 거트만 척도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오승환(2001), 신정이·황혜원(2008), 김민경·김경은(2009) 등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김민경·김경은(2009)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 나. 양육행동 척도

이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형식상 차원론적 구성과 유형론적 구성으로 분류된다. 차원론적 구성은 양육행동을 몇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차원들의 연속선상에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즉 하위척도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유형론적 구성은 특별한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하위 요인들, 하위척도들로 양육행동의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후자인 유형론적 구성에 기초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제작된 양육행동 문항들에 대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43개 문항이며, ‘자녀에게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편이다’ 등 합리적 설명(5개 문항), ‘자녀가 외출하면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 편이다’ 등 민주적 감독(4개 문항),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편이다’ 등 애정(8개 문항), ‘같은 일에 대해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다’ 등 비일관성(4개 문항),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 편이다’ 등 과잉간섭(7개 문항),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이다’ 등 과잉기대(6개 문항), ‘화가 날 때면 아무거나 들고 자녀를 때린 적이 있다’ 등 학대(5개 문항), ‘자녀를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등 방임(4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한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43점에서 172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이며 긍정적 양육행동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혜영(2000), 허묘연(2004), 신정이·황혜원(2008)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특히 허묘연(2004)이 타당도 검증을 위한 관별분석 결과, 최종 부모양육행동척도의 총점은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이·황혜원(2008)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 5.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비모수통계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실험집단의 사례수가 11명으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만큼 사례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PSS 15.0을 사용하여,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검정을 통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고, 부모의 자이즌증감과 양육행동의 변화, 즉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총 1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그러나 참여부모의 요청에 기초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표 2>를 제외하고 과정분석 결과 등 개인 정보 공개는 제한된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인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라오스 거주기간, 자녀연령, 자녀수, 가족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와 같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11명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40대가 6명, 30대가 5명으로 평균 연령 40.4세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졸 10명, 대학원졸 1명으로 모두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구성되었다. 라오스 거주기간은 평균 3년 10개월이고, 참여부모 1인 당 평균 자녀 수는 2.09명이며, 자녀의 평균연령은 10.7세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모두 양부모가정이다.

표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 부모	성별	연령	학력	라오스 거주기간	자녀 연령	자녀 수
1	여	43세	대졸	5년	12세, 9세	2명
2	여	40세	대졸	3년	13세, 11세, 9세	3명
3	여	42세	대졸	4년	12세, 11세, 9세	3명
4	여	45세	대졸	5년	17세, 13세	2명
5	여	37세	대학원졸	2년	8세	1명
6	여	42세	대졸	5년	12세, 9세	2명
7	여	39세	대졸	5년	12세, 10세	2명
8	여	39세	대졸	5년	12세, 10세	2명
9	여	38세	대졸	3년	12세, 8세	2명
10	여	40세	대졸	3년	10세, 8세	2명
11	여	39세	대졸	3년	11세, 8세	2명

## 2. 프로그램의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 가. 부모의 자아존중감 비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총 4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31.54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5.18점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64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평균의 차이에 관해 윌콕슨대응쌍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러한 결과는 곧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3. 부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	Z	P
사전검사	11	31.54	4.50	3.64	-2.615	.009**
사후검사		35.18	3.57			

### 나. 부모의 양육행동 비교

#### 1) 양육행동의 전체 비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 전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총 172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28.81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44.27점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행동 전체는 평균 15.56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평균의 차이에 관해 윌콕슨대응쌍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1$ ). 이는 곧 이 프로그램이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4. 부모의 양육행동 전체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	Z	P
사전검사	11	128.81	11.56	15.56	-2.940	.003**
사후검사		144.27	13.06			

2) 양육행동의 하위척도별 비교

양육행동의 8개 하위척도인 합리적 설명, 민주적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다. 합리적 설명은 총 2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6.09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09점으로 평균 2.0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감독은 총 16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 15.36점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은 총 32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7.72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9.18점으로 평균 1.46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채점된 비밀관성은 총 16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9.72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1.45점으로 평균 1.73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부모의 비밀관성이 평균 1.73점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역채점된 과잉간섭은 총 28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6.72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0.0점으로 평균 3.28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과잉간섭이 평균 3.28점 감소했다. 역채점된 과잉기대는 총 24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6.09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9.0점으로 평균 2.91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과잉기대가 평균 2.91점 감소했다. 역채점된 학대는 총 20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3.45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6.27점으로 평균 2.82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가 평균 2.82점 감소했다. 역채점된 방임은 총 16점을 기준으로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3.63점,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4.90점으로 평균 1.27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이 평균 1.27점 감소했다.

표 5.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척도별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	Z	P
합리적 설명	사전검사	11	16.09	2.54	2	-2.842	.004**
	사후검사		18.09	2.34			
민주적 감독	사전검사	11	15.36	.67	0	.000	1.000
	사후검사		15.36	1.20			
애정	사전검사	11	27.72	3.40	1.46	-2.039	.041*
	사후검사		29.18	2.78			
비일관성	사전검사	11	9.72	2.05	1.73	-2.354	.019*
	사후검사		11.45	2.29			
과잉간섭	사전검사	11	16.72	2.00	3.28	-2.766	.006**
	사후검사		20.00	3.34			
과잉기대	사전검사	11	16.09	2.66	2.91	-2.823	.005**
	사후검사		19.00	3.49			
학대	사전검사	11	13.45	2.73	2.82	-2.625	.009**
	사후검사		16.27	1.67			
방임	사전검사	11	13.63	1.68	1.27	-2.354	.019*
	사후검사		14.90	1.44			

이러한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이에 관해 윌콕슨대응짜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민주적 감독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각 하위영역별로 변화된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과잉간섭이 3.28점, 과잉기대 2.91점, 학대 2.82점, 합리적 설명 2.0점, 비일관성 1.73점, 애정 1.46점, 방임 1.27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했다. 이는 곧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부모의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비일관성, 방임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을 증가시키고,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비일관성, 방임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 분석을 통해 그동안 일관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매를 드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한 후 부모로서의 자신 돌아보기, 부모 자신과 자녀의 강점 찾기, 경청, 공감,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역할극, 분노조절기술훈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재외동포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접근한 강점관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그동안 국외라는 양육환경에서 노력해 온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집단활동, 그리고 상호 지지하는 피드백을 통해 개별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성이 있음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사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 3.64점이 증가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1$ ). 이는 최근 선행연구들(이화순, 2008; 신정아·황혜원, 2008; 김유순·이국향, 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강점관점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평균 15.56점이 증가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1$ ). 이는 이재현의 연구(2008) 결과와 일치한다. 양육행동의 하위척도별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합리성과 애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부정적 양육행동인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따라서 강점관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참여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부모의 욕구와 양육환경 특성에 맞춰 개발된 강점관점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역할극, 자녀와의 대화녹음 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양육행동을 점검하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다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참여부모의 강점을 상호 지지함으로써 개별 부모의

자이존중감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효과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현실적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아동복지학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부모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재외동포가정의 경우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부모의 결석률 또는 탈락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총 5회로 실시했다. 5회 이하의 부모교육프로그램 회기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변화를 확보하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연구는 연구자의 귀국으로 인해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추후변화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셋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자녀 연령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발달단계별 육육 특성과 차이점이 구성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특히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실험집단 설계를 통한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가정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스스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언어, 경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국내보다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 이주한 문화권의 가치관과 개인의 양육 신념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많으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접할 기회는 부족해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글학교 학부모들은 이 연구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아닌 곳에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참여한 부모들 상호간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이존중감을 회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재외동포가정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이나 양육부담이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 고국을 떠나 고립된 국외 양육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서로 모여 공감하게 되고, 자녀와 보다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남편과 함께 나눴으로써 양육행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향후 재외동포가정의 양육문제를 지원하는 실천적 개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참여 부모들이 각자 제출한 회기별 과정 기록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운영방법, 일정, 시간,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물론 단지 5회기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이 향상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사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향상된 수준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로 접어든 부모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자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모를 만족시키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 부모의 특성과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소위 기러기가족 등 재외동포의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실천적 의의를 갖으며, 보다 궁극적으로 재외동포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하여 부부갈등과 자녀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도 갖는다. 더구나 매년 이주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부모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부모역할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로 확대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의도 있다.

이혜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런던대학교 대학원(LSE)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일본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복지실천(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청소년복지실천, 학교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E-mail: hwlee@skhu.ac.kr)

## 참고문헌

---

- 강기정(2005).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 가정학회지, 43(9), pp.15-26.
- 국가인권위원회(2008). 별별이야기 2: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_\_\_\_\_ (2010).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pp.5-32.
- 김경미(2006).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자녀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동가족학과, 경희대학교, 서울.
- 김민경, 김정은(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pp.119-135.
- 김성근(2009). 세계화 국제경쟁력시대 재외동포의 협력과 역할. 이주동포연구, 15, pp.1-11.
- 김경연(1993). 취업모의 관련 변인 및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6(1), pp.37-50.
- 김연수(2008).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pp.189-222.
- 김영주(2009). 재미 한인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양육에 관한 내용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pp.183-194.
- 김오남(2007).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0, pp.189-222.
- 김유순, 이국향(2010).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pp.157-184.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노진아, 이숙(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pp.81-93.

-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pp.31-49.
- 박건형(2010.5.11). 기러기가족 자살로 본 뉴질랜드 유학 실태. 서울신문. 1면.
- 박재현(2008). 사바이디 라오스. 서울: 한울출판사.
- 서유경(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이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신의진(2007). 왜 조승희를 외톨이로 두었는가?. 한겨레 21, 제658호.
- 신정아, 황혜원(2008). 가족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3), pp.101-122.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안희정(2005). 자기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SEPT)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2), pp.85-97.
- 양옥경, 김연수(2004).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pp.225-261.
- 외교통상부(2011). 2010년 재외동포 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유안진, 김연진(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윤복남(1997).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응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연구, 3(1), pp.21-69.
- 이수정(2007.05.09).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포항공대신문, 5면.
- 이재현(2008). 빈곤가정 부모를 위한 강점 관점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의대학교, 부산.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 재미동포 한인 1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pp.57-71.
- 이혜원(2010.11.26). 기러기 가족을 위하여. 한국일보. 39면.
- 이화순(2008). P.E.T.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양대학교, 영주.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25, pp.67-81.

- 정은미(2007).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이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기독교전문대학원, 백석대학교, 천안.
- 정추영(2004). 사회적 지지가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서울.
- 주라오스한국대사관(2009). 재외국민등록 내부자료.
- 터더이 아리온사나, 유서구(2011). 몽골이주가정 자녀 학교적응의 영향요인: 다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pp.177-203.
- 통계청(2010). 2009년 출산통계. 대전: 통계청.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pp.170-189.
- 허연주(2009). 타 문화권에서의 자녀교육. 라오스한글학교 부모교육세미나 자료집.
- Adler, G.(1979). *Dynamics of the Self*. London; Conventure Ltd.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 Belsky, J.,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Delacorte Press.
- Butcher, J. N., Egli, E. A., Shiota, N. K., Ben-Porath, Y. S.(1988).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Refugees*.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Cohen, S., Willi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310-357.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inkmeyer, D., Mackay, G. D.(1982). *The Parent's Handbook - STEP -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Dreikurs, R.(1973). *Psychodynamics,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of Chicago.

- Fine, M. J.(1988).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Gorden, T.(1970). Parenting, teaching, and child development. *Young Children*, March, pp.173-183.
- Kane, G. A., Wood, V. A., Barlow, J.(2007). Parenting programmes: A systematic review and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3(6), pp.784-793.
- Levey, E.(1968). Is Scientific Treatment of Goal Directed Behavior Possible?. *Journal of the Hillside Hospital*, 17, pp.103-113.
- Loftus, J.(2006). Reconstructing Relationships: How Infertile Women Cope with Negative Social Suppor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04424-104445.
- Popkin, M. H.(1983). *Active Parenting Action Guide*. Atlanta: Active Parenting, Inc.
- Raikes, H. A., Thompson, R. A.(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pp.177-190.
- Rogers, C.(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 Sanders, M. R.(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prevention of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pp.71-89.
- Ying, Y. W.(1999). Strengthening international/intercultural ties in migrant families: A new intervention for par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1), pp.89-96.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Child-rearing Behavior of the Overseas Koreans**

## **: Focusing on Laos Korean School Parents**

**Lee, Hye-Won**

(Sungkonghoe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child-rearing behavior of the overseas Koreans in Lao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Rosenberg (1965)'s self-esteem scale and Huh (1999)'s child-rearing behavior scale on the 11 parents, who participated the five session program every Wednesday morning for two hours at Laos Korean Schoo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s'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the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improved. In the concrete, the parents' rationality and affec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arents' inconsistency, over-interference, over-expectation, maltreatment,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overseas Koreans' self-esteem and rational child-rearing.

---

**Keywords:** Overseas Koreans, Self-esteem, Child-rearing Behavior, Parent Education Program